시선

사설

SPACE21사업, 불신은 아무런 득 되지 않는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입문〉에서 불안의 두 가지 근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는 '불안함'이 대상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와 '너무 잘 아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말한다. 즉, 대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그 결과가 예측되지 않으므로 불안이 생성되며, 또 대상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결과가 미리 예견될 때에 불안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서로 매우 상반돼 보이는 불안의 이 두 가지 근원은, 종종 특정한 사건에 직면한 조직 공동체가 구성원 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게 되는 원인을 제공해왔다.

가령, 리더십은 공동체가 직면한 사건에 대해 '너무 많은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구성원의 불안감을 과도하게 자극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곤 한다. 이에 많은 리더십은 정보의 통제에 몰두하게 된다. 이것의 결과 구성원은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가 통제됨으로써' 불안감을 자극받곤 한다. 그래서 구성원은 '정보를 숨기는 현 리더십은 무능해보이며, 이 무능의 결과는 뻔히 예상되므로 불안하다'는 생각에 쉽사리 빠져드는 것이다. 이것은 상호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다.

안타깝게도, 최근 SPACE21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학교 측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총학) 측의 논쟁 구도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는다.

먼저, 학교 측은 구성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데 미숙한 모습이다. 주지하듯, SPACE21사업은 우리학교의 숙원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 구성원이 뜨거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구성원의 많은 의문들 앞에서 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려 하기는커녕 자세한 부연 설명도 없이 '믿어 달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내놓고 있을 따름이다. 이것은 결코 신뢰를 요청하는 행동이 아니다. 도리어 구성원에 대한 불신이 묻어나는 태도이자, 구성원의 불안을 조장하는 행동이다. 학교 측이 정말로 구성원을 SPACE21 사업의 동반자로 여기고 신뢰하고 있다면, 구성원 앞에 솔직한 태도로 나서야 한다. 모든 정보들 가운데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을 신속히 확정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공개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신감 있게 양해를 구하면 될 일이다.

반면, 총학 역시 학교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 최소한의 신뢰는 전제로 두고 논쟁을 벌여야 한다. 거대한 규모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현재의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아직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총학은 SPACE21사업의 동반자로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명확한 팩트와 수치들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논의를 지속하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표피적인 우려나 피상적 가정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해가려 한다면, 그것은 합리적 의심이 아닌 불신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되고 말 것이다.

겨우 시작되려 하고 있는 숙원사업이, 상호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불안 때문에 재차 중단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교 측과 총학 측 모두, 상대에 대한 불신을 털어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의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주의 주제 - 국제캠퍼스 보행로 문제

서천동 주변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해야

이소진 〈기자〉

국제캠퍼스(국제캠) 주변 자취공간이 정문 앞에서 서천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천동 일대가 개발되면서 상대적으로 월세가 저렴한 신축 원룸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생활반경이 넓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보행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6월부터 통학생들이 자주 지나는 서천동 원룸촌 주변 '굴다리' 이용이 제한돼, 불편이 벌어지고 있다.

'굴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안전'이다. 서천동 원룸촌에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서천동으로 향하는 길 중 제대로 된 '길'은 하나도 없다느데서 '안전' 문제는 불거진다.

우정원 하수처리장 옆에서 서천동 원룸촌으로 이어지는 길은 위험 요소가 많았다. 길은 폭 50cm로 옆에 배수로를 두고 이어져 있어 체조 경기장의 '평균대'나 마찬가지다. 우정원 뒤쪽에 맞닿아 있는 샛길 역시 정식 통학로가 없는 인근 원룸촌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 하지만 높이 10cm 가량의 나무판자를 덧대어 만든 길은 여기저기가 파손된 채로 아슬아슬한 상태다. 또한 글로벌관·제2기숙사 뒤에서 서천동으로 이어지는 통학로는 후반부 경사부부터 포장 없이 방치돼 있다. 통학로에는 가로등 하나 없어 야간에 시야확보도 힘든 상태다. 차마 길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샛길이 버젓이 '통학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다못해 해당 길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한결같이 "불편하지만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학교가 길을 정비해줬으면 좋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굳이 학생들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기자의 눈에도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길을 재정비하는게 시급해 보였다. 이와 관련해 관리팀의 의견을 물었다. 관계자들 역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길을 만든다거나 조치가 이뤄지기까지는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해보인다.

서천동 방향 통행로의 상당부분이 '학교 밖' 도로인 만큼, 이 도로의 모든 부설을 학교가 재원을 마련해 추진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최소한의 조치를 우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안의 '길'은 대학이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 밖 길 역시 용인시나 경기도 등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도로부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득해야 한다. 학교 밖 통학로 역시 학교의 책임범위이기 때문이다.

안전대책의 핵심은 '선제적'인데 있다.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매년 서천동에 거주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더불어 통학로를 이용하는 통학생 역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문제에 대한 '인지'를 넘어 실질적인 대책과 변화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

뒤집기 연속인 대학구조개혁, 본래 목적 무엇인가

세시봉

백승철 〈편집장〉

전문가들이 말하는 고기를 맛있게 굽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 방법은 바로 '뜨겁게 달궈진 팬 위에서 짧은시간 굽고 자주 뒤집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기를 여러번 뒤집다 보면 육즙이 사라지고, 고유의 맛이 사라져 맛이 없게 되기 때문이란다. 기본적으로 좋은 정책이라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어떤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추진이 있을 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으로 해당 대책이 필요한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대학구조개혁'은 맛있게 구워지긴 어려워보인다.

'대학구조개혁' 1단계 평가결과가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평가결과에 주목해야겠지만, 최초의 목적에서는 멀어졌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평가지표를 슬쩍 바꾸기도 하고, 실시하기로 예정돼있던 현장평가도 인력부족과 일정상의 이유로 취소해버렸다.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도 지난 4월부터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는 '대학의 정원감축에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며 한 발짝 물러선 상태다.

여러번 뒤집어서 이미 맛없어진 고기를 '맛있다' 고 우기기 보단, 차라리 새로 굽는 것이 낫다

현 정부 출범 후,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던 때로 돌아가보자. 당시 교육부는 '대학정원 비대화와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대입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며 당장이라도 대학구조개혁에 돌입하는 듯 했다. 이런 문제의식 자체에 반대하는 이는 드물었다. 오히려 고등교육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을 기대하는 시선도 있었다. 결과적지만 현 시점으로 볼 때, '제대로 된 교육여건도 갖추지 못한' 대학의 교육여건을 끌어올리기는 커녕, '실용과 취업만을 더 중심에 두는' 우려만 현실화됐다.

여러번 뒤집어서 이미 맛없어진 고기를 '맛있다'고 우기기 보단, 차라리 새로 굽는 것이 낫다. 여전히 교육은 뒷전이고 등록금으로 '학위장사'나 하고 있는 일부 문제대학이 고등교육을 갉아먹고 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문제는 유효하다. 대학구조개혁 1차 평가가 조금이라도 유의미해지기 위해선 대학에 불필요한 '학과'가 너무 많은 것보다는, 대학답지 못한 대학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PS-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한 "올해 안에 대학 전공별 산업계 인력수급 상황을 전망하겠다"는 것이 대학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고기라면, 고기를 맛있게 굽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구울 고기가 최소한 썩은 고기는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내에 메르스 공포 확산 3차 감염 방지 위해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세요!"

미디어 여론동향 2015. 5. 25 ~ 6. 7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주차 할인용 도장'이 오는 30일부터 폐지된다.(6월 30일부터 주차 할인용 도장 제도 폐지/대학주보 온라인, 2015. 6. 1) '주차 할인용 도장'은 일반할인의 일환으로 학교 방문차량에 대한 편의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도장이 남용됨에 따라, 협소한 주차공간 문제가 더 불거지는 원인이 됐다. 특히 SPACE21사업과 공공기숙사 신축을 앞둔 상황에서, 대운동장 폐쇄에 따른 주차공간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불법주차 차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총무팀 측은 "일반할인 제도만 폐지하는 것"이라며 "오는 29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치과대학 3회 졸업 동문들이 졸업 40주년을 기념해 발전기금 3,400만 원을 기부했다.(치과대학 3회 동문들, 매년 발전기금 2억 모금하겠다/대학주보 온라인, 2015. 6. 3) 더불어 이들은 '2234운동', 매년 2억, 20주년 1인당 50만 원, 30주년 개인당 100만 원, 40주년 1인당 100만 원이상 모금을 제안하며 발전기금 모금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치과대학 학장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전달식에서 제안된 내용이다. 치과대학 박영국 학장은 "기수별 동문회 모임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선배들의 후배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성철(체육학 95) 전 KGC인삼공사 코치가 우리학교 농구부 코치를 맡게 됐다.(김성철 코치, 모교 경희대 코치 부임/점프볼, 2015. 6. 3) 우리학교는 기존의 농부구 최명도 코치가 모비스 코치로 가게 됨에 따라 공석이 된 코치직에 김 코치를 선임했다. 김 코치는 재학 시절 강혁, 윤영필 등과 함께 중위권이던 우리학교를 강호로 이끈 바 있다. 프로에서는 KGC인삼공사, 전자랜드에서 뛰었고, 큰 키에 정확한 슈팅력을 자랑하는 장신슈터로 꾸준히 활약했다. 특히 국가대표로 선발돼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은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김 코치는 오는 4일 팀에 합류할 계획이다.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메르스 바이러스와 마스크'(#경희숲_9057,9058,9059 2015. 6. 2)에 관한 이야기가 눈에 띄었다. 글쓴이들은 "메르스가 걱정돼 마스크를 착용했다. 그런데 왜 마스크 쓴 사람을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하느냐", "본인이 마스크를 안 쓴다고 쓴 사람 망신주지마라", "국제캠퍼스 주변은 마스크가 매진됐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댓글로 "여담이지만 마스크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감염됐을 때 그 확산을 늦추기 위한 도구다",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입 가리고 하는게 맞다" 등과 같은 동의하는 의견들이 올라왔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전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